



일제강점기 수탈에 맞선 역사 속 거리를 거닐다

군 산시는 오는 10월 7일 오후 3시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제10회 군산시간여행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10회째인 이번 축제는 '코로나 이후 다시 모인 우리, 그리고 함께 떠나는 군산으로 시간여행의 의미를 가진 '우리들의 시간여행, 군산을 슬로건으로 정했다. 군대군산의 모던걸(모던보이)를 2022년 축제 테마로, 군대 복장을 착용한 시민과 관광객이 북적이는 축제장을 연출할 계획이다.

올해 시간여행축제는 민간축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활동가, 청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기획하고 디자인해 즐기는 주민참여의 지역주도형 축제로 준비했다. 그간 주민축제 학교 운영, 시민포스터 모델 공모, 군산스타 시민 오디션 등 다양화 시민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개막일인 10월 7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되는 퍼레이드는 해망글에서 구 시청광장까지 펼쳐지며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구 시청광장과 광장앞 대학로에서 개막식과 대동마당이 열리게 된다.

시간여행 대동마당에는 드론쇼와 그라피티쇼, 뮤지컬 그리고 거리 EDM쇼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시민과 관광객이 디자인된 어우러지는 한바탕 놀이미당이 마련된다.

특히, 구시청광장과 광장앞 대학로 구간을 넓게 활용해 중심 축제장으로 조성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집중성과 인근 지역으로의 확장성 그리고 축제장으로의 접근성 개선, 방문객의 역동적 참여성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일제 강점기 수탈의 만행 속에서 편 군산 공동체의 항거정신과 치열한 삶의 역사를 공유하고 새기는 군대 군산으로의 시간여행을 축으로, 시간을 되돌려 군대 이전 과거로 그리고 현대를 지나 미래로의 시간여행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다.

명실상부 군산의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는 전국 최대 군대문화의 집적지 군산을 중심으로 과거로의 시간여행이라는 시공 초월 모티브를



내달 7일부터 10일까지 시간여행마을 일원서
구 시청광장·광장앞 대학로 중심 축제장 조성
올 축제 테마로 '군산 모던걸&모던보이' 설정
민간축제주진위 중심… 청년·시민 직접 참여
독립운동 미션·군산항 콩쿠르 등 체험 다채
공룡대탐험·역전의 명수 등 프로그램도 병행



▲교통통제구역

시는 구시청광장앞 대학로 구간을 활용한 본격적인 거리형 축제장 조성에 따라 10월 7일 금요일 0시부터 10월 10일 월요일 밤 12시까지 구시청사거리에서 내항사거리 구간의 교통을 통제하고 해당구간 통행 차량은 종양로 방면 (구시청사거리↔해신동주민센터↔해양경찰서)과 죽성로 방면(구시청사거리↔기구거리↔제보선항삼거리)으로 우회로를 유도하고 우회도로변에는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민족 주정차를 금지한다.

시는 교통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차량통제, 우회도로 사전안내, 대중교통 운행정보 등에 대한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완전한 대면행사로 열리는 민족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축제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한데 모아 다양한 즐길거리, 체험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축제를 만들 것"이라며 "특히 올해 시간여행축제는 구시청광장의 장소적 축약성을 벗어나 광장 앞 대학로와 연계한 본격적인 거리축제장을 조성하였고 시간을 모아가는 체류형 축제를 유도하는 스마트한 프로그램을 통해 예년과 다른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군산시간여행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간여행축제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메타버스군산시간여행축제(제페토 다운로드-아비타 만들기 - '군산' 검색 -> 군산 시간여행미을 맵)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산=김판곤기자

